

2007 금융기관장 인터뷰 ⑥ 포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영찬

“철저한 경영혁신으로 새농촌 새농협 조성”

콩수확 바인더 최소한 5대는 지원해야



“모든 사업은 조합원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제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본질인 경영혁신을 통해 철저한 경영관리를 추진하고 화합을 통하여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고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포천농업협동조합 양영찬(사진) 조합장이 밝힌 2007년 포천농협 경영방침이다.

포천농협은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조합원 3천58명(여성조합원 377명)과 1만2천626명의 준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장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8인, 감사 2인으로 임원 12인과 직원 117명(정규직 75명, 비정규직 42명)이 조합을 이끌어 가고 있다.

총자산은 2천489억원이며 총부채는 예수금 2천67억원을 포함해 2천306억원이며 자기자본은 183억원으로 출자금은 46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1인당 평균 151만원이다.

2006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교육지원사업은 비료·농약·농기계보조·농기계무상수리 등

생산자재의 보조로 3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업인안전공제 6천만원, 향토장학금 4천만원, 조합원 경조사 1천2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기타 조합원교육 및 영농생산지도활동,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조합원 전이 융사업 실시 등 총 9억9000만원을 투입했다.

신용사업은 조합원의 원활한 농업자금조달과 조합원여자금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총 예수금 2천67억원을 조합원 및 거래고객으로부터 유치하여 1천757억원을 상호금융대출금으로 운영하는 한편 여유자금은 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으며 정책자금대출금은 109억원을 지원했다.

판매사업은 비 공공비축제도입과 쌀값 불안정 속에서도 자체 수매 비 판매에 노력한 결과 58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농산물의 공판장 출하실적은 27억원, 군남 33억원, 축산물과 과채류 판매면화로 총판매실적은 140억원이다.

경제사업으로 조합원의 영농자재인 비료 10억원, 농약 6억원, 농기계 6억원, 유류 60억원, 기타 일반자재 15억원의 사업실적을 올렸으며 하나로마트 사업은 매년 성장하여 1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제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총 공제료 46억원을 수납해 6억원의 수수료 수익과 사고공제금 220건 2억2천만원을 지급했고 1천63억원의 유효계약액을 보유하고 있다.

순익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 사업추진과 이익달성에 노력한 결과 법정총당금의 적립과 함께 2006년도 목표순

익을 초과해 17억2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이는 제비용의 절감과 대출확대 추진 등을 통해 실현했으며 조합원들에게 원활하게 배당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으로 전국 5개조합장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7년도에는 조합원 실익최우선과 경제사업활성화, 새농촌 새농협 운동을 통한 경영혁신, 화합과 상생으로 건전한 조직관리를 3대 경영목표로 세우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매월 1일 조합원 방문의 날을 운영해 영농지원사항을 점검하고 예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조합원 자녀 대학생 입학장학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영농회별 육묘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육묘장 50평형 영농회당 1동씩 보조지원하기로 했다.

영농생산자재보조지원사업으로 비료, 농약, 상토, 농기계구입관련 교육지원사업예산 3억8천500만원을 배정해 조합원의 영농생산비절감을 위해 보조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 하고 있다.

복지지원사업으로 전조합원에 게 농업인 안전공제 무상가입으로 농작업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하고 고령화된 농촌에 경로당을 기준으로 노인지원사업으로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15일 초재식을 갖고 2007년 공판장운동을 시작해 지난해 27억원보다 3억원 많은 30억원을 목표로 우수한 농산물을 출하 경매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 자체비 수매계획으로 수라, 운광, 오대와 별도로 자체수매종으로 수라, 운광, 고시히가리 품종으로 선정, 미질 개선 및 소비자가호도 증진을 위해 해솔촌 포천쌀과 기찬쌀로 포장재를 활용하고 조합내 생산쌀의 판확보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사랑 1사촌 자매결연 사업으로 관내 직두리·경활청 등 5개 부락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이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마을지도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직거래행사,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농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양영찬 조합장은 “수확기에 콩수확을 위한 바인더가 1대뿐이어서 예로사항이 많아 최소한 5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포천시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 포천시 쌀을 브랜드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리경작인도 벼소득불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토 공급 또한 마찬가지다. 토지주에게 상토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안하고 방치되는 상토도 있어 예산낭비라고 지적한다. 특히 포천시 상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 지난해 4만6천600톤으로 상토를 해결했는데 올해는 8만2천톤을 주문해 3천여만여 부족해 농업인이 자부담하도록 했다.

양 조합장은 내 농협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원들이 애정을 갖고 농협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포천시가 협회실무진과 사업추진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28 정원측량설계사무소

체계화된 측량설계로 경쟁력 강화



소장 원 운 호

철저한 사명감과 젊음을 주무기로 토목분야에 필요한 측량·토지분석·토목설계·건설 인허가 등 토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원측량설계사무소(포천시 신읍동 394-14, 연천 사무소: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6-5(연천군청 앞) 소장 원운호).

2001년1월에 문을 연 정원측량설계사무소는 고객들이 의뢰한 인허가 관련업무 및 산지적용·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무료로 상담하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적극적인 사고로 고객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인허가 관련업무 일체 무료상담 다양한 실무경험이 고객에 도움

포천시 가산면이 고향인 원 소장은 의정부공과토목과 재학 중 포천측량설계사무소로 취업(일습) 나온 것이 인연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 소장은 10여년 동안 측량설계사무소에 근무하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으며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를 배우며 오너가 되기 위한 자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4년 연천읍 차탄리에 제2사무소를 개설, 경기북부지역으로 무대를 확장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연천 사무소에는 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타 지역이지만 직원들은 업무능력을 주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 소장은 “내년

측량설계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원하지 않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난감 할 때가 많다. 때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고객들과의 작은 마찰은 없을 수가 없다.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관계법이 바뀌는 경우와 고객들과의 견해가 다를 경우다. 하지만 고객들이 의뢰한 건에 대해선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명쾌한 인공을 시정을 넣어 제작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고객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략이 고객들과의 인맥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 소장은 직원들과의 화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서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일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원하는 그 이상의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있어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직원들의 도움이 있기에 원 소장은 관내 포천의용소방대, 시민 안전 봉사대, 국제로타리 3690지구 클럽 봉사위원장 등 바쁜 와중에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원측량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산림훼손 허가신청, 초지조

성 허가신청, 보전임지전용 허가신청, 하천부지점용 허가신청, 하천공작물설치 허가신청, 골재채취 허가신청, 사도설치 허가신청, 도로개설 허가신청, 도로부지점용 허가신청, 접도구역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국도이용계획 변경신청, 개발행위 신고, 농지전용 허가신청, 개발행위 허가신청, 주차장설치 허가신청, 상하수도 설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설묘지 허가신청, 공장설치 허가신청, 주유소설치 허가신청, 폐기물매립장설치 허가신청, 도로변휴게소 허가신청 등 기타업종에 대한 유사업무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질을 앞세워 대행하고 있다.

문의 031)535-4139, 031)834-8780, HP 017)396-3536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원측량설계사무소는 고객들이 의뢰한 인허가 관련업무 및 산지적용·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무료로 상담하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적극적인 사고로 고객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재테크 ⑧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소중한 선물

참 아름답다. 복숭아꽃, 철쭉, 꽃잔디, 어린 분홍부터 진분홍까지 색깔이 곱기도 하다. 점점 진해지는 연두빛 잎들도 싱그럽기 그지 않고 코끝에 실랑실랑 와닿는 라일락 꽃향기도 환호하기만 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린아날과 어버이날까지 있으니 5월을 여저 계절의 여왕이라 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고르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색다른 것을 선물하고 싶지만 시중에 나가보면 해마다 보던 것들만 눈에 띈다. 물론 가격도 만만치 않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이럴 때 이런 선물을 해보자.

1. 내 아이를 위한 선물

요즘 아이들은 뭐든 귀한 줄 모르고 커서 각정이라고 혼내줄 말한다. 아이 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만의 통장을 선물해서 돈을 모으는 재미와 방법을 배우도

록 해보자. 어린이날 받은 용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아이이름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 물론 단순 저축 보다는 펀드식 통장을 만들어 주면 키우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다.

아이의 통장을 만들어 줄 때는 돈을 모으는 목표를 꼭 붙여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갖고 싶어 하는 것 또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달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 차차 큰 목표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너무 큰 목표를 정하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모으는 돈이 너무 적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땀 아이가 준비한 만큼의 돈을 부모님이 덧붙여서 적립하는 것도 방법. 아이가 5천원을 마련했을 때 부모님이 5천원을 더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매번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아이와 돈을 모으는데 큰 흥미를 갖는다고 한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이름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금융사를 방문해야 한다.

2. 부모님을 위한 선물

부모님 선물을 고를 때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는 사람을 엮을 것이다. 해마다 좀 더 좋은 선물을 하고 싶지만 늘 마음 뿐 포대시 내년을 기약하곤 한다. 이번엔 부모님을 위한 건강보험이나 장애보험을 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물을 우리 마음도 든든해진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위한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꼼꼼히 찾아보면 저렴한 가격에 생각보다 괜찮은 보험을 들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한 장애보험도 추천할만하다. 막상 큰일이 닥치면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불편한 채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들 또한 내색은 하지 않지만 당신들의 마지막이 걱정인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평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가시는 길은 편안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장애보험이다.

최근 중소기업사의 부실 경영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만큼 대형 보험사의 장애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임종 직후 장애 도우미들이 파견되어 장애절차를 안내하고 수의부터 관까지 제공되며 리무진으로 잠까지 모셔드리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 2.3 만원의 돈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5월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사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 통해 대금을 지급하라

의류 원단을 도매하고 있는 이원단체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당하게 돌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비용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과세와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한다.

이원단체 입장에서는 부가과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세는 매입비용을 인정받았으면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본인으로서의 나열대로 주의를 다 했지만 나중에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한다.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

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과세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에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과세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시켜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민은행 인정을 받기가 쉽다.

위 사례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자료상으로 관평된 데다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원단체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차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로울러 이용해 노면 다짐작업중 성토사면 지지력 부족으로 전락

▶재해발생개요  
동결지반의 응축에 따른 지지력 저하로 도로공사 성토구간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노면 다짐작업 중 성토사면 지지력 부족으로 전락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위험요인  
• 동결지반의 응축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 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물 조물의 붕괴 및 변형

▶동중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대책  
•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 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 조사

• 최소 1월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안정상태 확인  
• 동결지반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물 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 철저

•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 및 가설도로 상태 점검  
•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등의 작업시 관계기관 사전 협의토록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지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연금의 종류별 특징은?

20년 이상 가입 60세 도달, 완전노령연금

소득 없을 경우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 가능

노령연금급여 구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생계유지 관계가 있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입연금으로 구성된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현재는 60세(조기노령연금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조기노령연금 60세)가 된다.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이르른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0세가 됐음에도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지만 10년 이상인

하고 지급이 정지된다.(국회개정안 상정)  
두 번째로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하기 전까지 연금별도 지급하는 연금액을 일부 제한해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다. 이 또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노령연금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60세에는 지급 받을 연금액의 50%를 지급하며 1세씩 증가함에 따라 지급률이 10%씩 상향조정돼 65세에 달하면 지급 받을 연금액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물론 종사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 또한 65세까지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 031-544-8700